

근칭 지시사의 개념적 · 절차적 의미 연구

최인지

(경상대학교)

Choi, In Ji. (2013). A Study on the Conceptual and Procedural Meanings of Proximal Demonstrativ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1). 155-184. Deixis is a phenomenon that has been studied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debate on the meaning of it. Adopting the cognitive perspective of relevance theory, this paper applies the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conceptual' and 'procedural' linguistic meanings to the question of how a variety of uses of proximal demonstratives is explained. It is proposed that proximal demonstratives 'this' in English and '이' in Korean encode both pro-conceptual and procedural information which has a fundamentally pragmatic effect on interpretation as part of 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 The procedural meaning encoded by proximal demonstratives instructs the hearer to pay attention to the intended referent which is most salient in the given context, while the pro-conceptual meaning of distance encoded by these demonstratives has to be contextually specified and directs the hearer's attention to the intended referent which is located as proximal on the distance scale. When the information encoded in the proximal demonstratives is superfluous during the phase of referent assignment, the extra effort required to process this information is justified by yielding an adequate range of additional inferential effect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offers a unified account of the spatio-temporal, discourse-deictic, anaphoric, and emotional uses of proximal demonstratives in terms of the relevance-theoretic notion of pro-conceptual and procedural meanings.

주제어(Key Words): 근칭 지시사(proximal demonstrative),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 개념적 의미(pro-conceptual meaning),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

1. 서론

지시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발화하였느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직시(deixis)라고 한다. 따라서 직시 표현은 발화 맥락을 고려해야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알 수 있는 단어나 구를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지시사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영어의 경우에는 근칭의 ‘this’와 원칭의 ‘that’으로 나뉘고 한국어는 근칭의 ‘이’, 중칭의 ‘그’, 원칭의 ‘저’로 나뉜다. 그러나 담화 상에서 공간적 거리를 표현하는 기능 외에 텍스트 상에서 앞선 대상이나 뒤따라 올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기능 역시 지시사의 주요 기능으로 연구되고 있다. (Lakoff, 1974; Levinson 1983; Dissel, 2006, 김일웅, 1982; 박철우, 2011; 임동훈, 2011). 또한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와 청자 간의 사전 지식의 공유 여부를 통하여 지시사의 쓰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시행되었으며(Fillmore, 1997; Strauss, 2002; 민경모, 2008), 화자와 청자 간의 개입과 참여라는 상호 작용 기능을 통해 지시사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Cheshire, 1996; Suh, 2002; 서경희·홍종화, 1999). 이는 물리적 현상 외에도 인지·심리적 현상, 화자와 청자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지시사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근칭 지시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Sperber & Wilson(1986/95)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적 관점에서 공간적 근접성에 관한 해석뿐만 아니라 지시사의 다양한 용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성 이론은 관련성(relevance)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관련성 이론에서 언어 표현이 갖는 의미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와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로 이분화 된다. 개념적 의미는 의미 표상의 성분이 되고, 절차적 의미는 어떤 개념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화용적 추론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하여 제약을 가한다. Scott(2009)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이분법을 토대로 근칭 지시사 ‘this’는 지시 대상이 ‘that’보다 직시 중심에 가깝다는 것을 표시하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근접성은 반드시 다른 근접하지 않은 대상들과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데,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맥락에서 지시 대상이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비가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근칭 지시사가 근접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거나 이미 화자와 청자에게 알려져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발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쓰임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이는 근칭 지시사가 절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근칭 지시사의 의미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지시사 ‘이’가 몸짓이 동반되어 쓰이는 경우와 담화에서 되풀이되는 요소를 조용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쓰임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절에서는 ‘this’와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분석 방식을 살펴보고 관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설명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관련성 이론의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를 설명하고 관련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발화 이해 절차(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를 통해 발화 해석 과정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근칭 지시사의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를 제시하고 이 의미를 바탕으로 최적의 관련성에 관한 청자의 추정을 통해 근칭 지시사의 다양한 쓰임을 분석한다. 5절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2.1. 'This'에 관한 고찰

전통적으로 'this'는 'that'과 대비되는 형태로써 공간적 근접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Halliday & Hasan, 1976; Lyons, 1977; Levinson, 1983). 즉, 'this'는 화자에게 가까운 것을 가리키고, 'that'은 화자로부터 먼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Kemmerer(1999)는 'this'와 'that'의 공간적 원근 개념이 화자가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의 여부와 같은 엄격한 의미보다는 추상적인 의미적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에서 'this one'과 'that one'이 가리키는 것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두 책의 공간적 거리 차이는 화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며 (1)을 발화한 것이라면, 화자의 입장에서 'this one'과 'that one'이 각각 가리키는 별의 실제 거리 차이는 미미할 것이다.

(1) Which one do you like, **this** one or **that** one?

일반적으로 'this'는 'that'보다는 직시 중심(deictic center)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고 'that'은 'this'보다는 직시 중심에서 먼 것을 의미한다. 직시 중심이란 화자, 화자가 발화하는 현재 시간, 현재 발화 위치로 정의된다(Levinson, 1983). Kemmerer(1999)는 지시사의 이러한 상대적인 의미 자질은 발화 맥락과 상황 맥락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거리적 원근 개념이라도 모두 지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실제 발화에서 지시 대상과 원근 개념과는 관계없이 'this'와 'that'이 쓰이는 경우를 적절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Strauss 1993, 2002; Cheshire, 1996, Hanks, 2009).

Lakoff(1974)는 'this'와 'that'이 일차적으로는 화자와 지시대상 간의 공간적·시간적 원근 관계를 표현하는 시·공간 직시(spatio-temporal deixis)로 쓰이지만 발화 맥락에서 앞서 언급된 대상이나 혹은 뒤에 나올 대상을 구별하여 지시하는 담화 직시(discourse deixis)로

도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2a)의 ‘this’는 뒤에 나오는 ‘the diversity of the city is awesome’를 가리키는데 쓰인 것이다.

- (2) a. What I like most about New York is **this**: the diversity of the city is awesome.
 b. *What I like most about New York is **that**: the diversity of the city is awesome.

Lakoff(1974)에서 담화 직시란 발화에 쓰인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 항목을 지시 대상으로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항목을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공지시(coreference)도 포함한다. 공지시는 언어 항목을 통하여 선·후행 발화에서 언급된 지시체(referent)를 후·선행 발화에서 되풀이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청자는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지시(reference)를 설정하며, 지시체는 지시되는 대상을 말한다. (3)의 ‘that poor little girl’이 가리키는 대상은 Jenny가 가리키는 지시체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지시 관계에 있다.

- (3) Jenny looked like she was going to bust into tears any moment. **That** poor little girl ran out of the room.

Levinson(1983, 2004)과 Dissel(2006)에서는 담화 직시를 각각 담화직시적 용법(discourse deictic use)과 조응적 용법(anaphoric use)으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발화에 쓰인 언어 표현 자체를 가리키는 (2a)의 ‘this’는 담화직시적 용법에 해당되고, 선행 발화에서 가리키는 대상과 지시 대상과의 공지시 관계를 가리키는 (3)의 ‘that’은 조응적 용법에 해당된다.

Cheshire(1996)는 공간적 거리를 전제하여 ‘this’와 ‘that’의 기본 의미를 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담화 상에서의 상호작용적 의미를 통해 ‘that’의 다양한 쓰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개인적인 개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this’를 사용하고, 화자 자신만의 개입보다는 청자의 개입을 기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that’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Cheshire(1996)는 담화 직시로 쓰이는 ‘that’은 지시 대상이 이미 선행 발화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리고 그 지시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이므로써 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2b)의 경우에서 ‘this’ 대신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지시 대상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될 수 없으므로 청자의 개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Fillmore(1997)는 공간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공유 지

식 유·무도 'this'와 'that'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this'는 화자만 알고 청자와는 공유되지 않은 지식을 가리킬 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Strauss(2002)는 공간적 거리감이 아닌 화자에게 있어서 지시 대상의 중요도와 그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의 공유 정도에 따라 'this'와 'that'의 선택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지시사는 각기 다른 단계의 초점(focus) 즉, 지시 대상에 대하여 청자에게 요구되는 관심의 정도를 표시하는데 'this'는 고초점(HIGH FOCUS)을 표시하고, 'that'은 중초점(MEDIUM FOCUS)을 표시하며 'it'은 저초점(LOW FOCUS)을 표시한다고 보았다.

(4) One day last year on a gloomy day, I saw **this** guy, and ...

예를 들어 (4)의 경우와 같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적이 없고 발화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하여 화자가 'this'를 사용한 것은 청자가 그 지시 대상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길 바라서이며, 'this'를 통해 청자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일으키는 지시사의 쓰임을 Lakoff(1974)는 감정 직시(emotional deixis)라 한다.

Gundel et al.(1993)은 지시 표현이 청자의 심리 모형(mental model)에서 지시 대상의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 갖는 활성화(activation)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의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시 대상의 표상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this'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4)의 예와 같이 화자는 지시 대상을 식별할 수 있지만 청자도 식별가능한지 여부는 불투명한 비한정적 용법으로 'this'가 쓰였을 때 지시적(referential)이라는 범주가 적용된다. 즉, (4)의 'this guy'처럼 특정 대상을 화자가 염두에 두고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에 지시적인 것이다. 이때 청자는 'this guy'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유형의 표상에 접근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발화를 처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표상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Ariel(1990, 2004)은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이란 개념으로 지시사를 설명한다. Ariel(1990)에 따르면 접근 가능성은 지시 표현이 갖는 의미의 일부를 구성하며, 청자로 하여금 이 지시표현이 갖는 접근 가능성의 정도로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다. Ariel(1990)은 더 접근 가능한 개체는 'this'로 지칭되며, 덜 접근 가능한 개체는 'that'으로 지칭된다고 보았다.

Strauss(2002), Ariel(1990, 2004), Gundel et al.(1993, 2004)은 지시사가 표시하는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지시사가 갖는 특성으로 하여금 여러 가능한 지시 대상 후보들 중에서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청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러한 논의를 따르며 Reboul(1997)에서는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지시사란 발화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비-진리 조건적 의미를 부호화하는 언어 표현이라고 좀 더 구체화하였다. Reboul(1997)은 지시사 'this'와 'that'의 차이는 화자와 지칭하

는 대상과의 상대적인 거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후 Scott(2009)은 관련성 이론에서 의미 간의 이분법을 적용해 Reboul(1997)이 제시한 ‘this’와 ‘that’의 부호화된 정보는 절차적 정보라고 간주하고, ‘this’와 ‘that’이 갖는 원근 관계는 ‘여기’(‘here’)와 ‘거기’(‘there’)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Scott(2009)이 제시한 ‘this’의 절차적 의미 역시 Halliday & Hasan(1976), Lyons (1977), Levinson(1983)과 마찬가지로 화자로부터 가깝고 먼 거리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Strauss(2002), Ariel(1990, 2004), Gundel et al.(1993)이 제시하였듯이 공간적 거리라는 개념이 모든 지시사의 쓰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지시사가 청자로 하여금 지시 대상을 찾으려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this’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와 쓰임을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this’의 절차적 의미는 명시성(manifestness)과 연관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this’는 맥락에서 구체화되는 근접성에 관한 개념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발화 해석 과정에 따라 ‘this’와 관련된 다양한 쓰임에 대해 통합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2. ‘이’에 관한 고찰

한국어 지시사 ‘이’, ‘그’, ‘저’는 전통적으로 근칭, 중칭, 원칭의 삼원화된 체계로 분류되었다(최현배, 1959; 장경희, 1980; 김일웅, 1982). 최현배(1959)는 화자에게 가깝거나 정신적으로 친밀한 대상에는 ‘이’, 청자에게 가깝거나 친밀한 대상에는 ‘그’,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것에는 ‘저’가 쓰인다고 말한다. 장경희(2004)에서도 지시사는 개체가 처한 위치의 원근 개념을 의미로 지니고 청자가 지시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5) 나는 이 책이 정말 재미있더라.

(6)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장경희, 2004: 63)

(5)의 ‘이’는 ‘책’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장경희(2004)는 (6)에 사용된 ‘이’는 선행 발화의 내용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며 현대 국어에서 지시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6)과 같은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김일웅(1982)은 원근이라는 것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과 처리 가능성 여부까지 모두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지시사 '이'는 담화 상황과 관련된 것을 지시하는 상황 지시와 언어적 문맥에 있는 요소를 지시하는 조응지시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7) a. A: **이것** 가져가도 돼?

B: 아니, **이건** 안돼. 저걸 가져가.

b. 나의 **이** 슬픈 마음을 누가 알아 줄까?

c. 어제 책을 받아 보았더니, **이** 속에서 새 사실을 찾게 되었다.

(김일웅, 1982: 16-20)

(7a)에서 A와 B가 모두 같은 대상을 '이'로 지시하는 것은 A와 B 모두 지시 대상이 자신의 영역 안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의 쓰임은 지시 대상이 발화 현장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현장 지시의 예가 된다. (7b)의 '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화자의 의식 속에 있다는 점에서 개념 지시로 구분되고, 지시 대상에 대하여 화자가 가깝게 '이'를 사용한다.¹⁾ (7c)의 '이'는 앞선 발화의 선행어가 지시 대상이 되는 조응적 용법에 해당되는데, 선행어에 대해 화자가 심리적·시간적으로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이며 지시 대상에 대해 심리적·시간적으로 멀게 느꼈다면, '그'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일웅(1982)은 현장지시가 '이'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이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구체적 가리킴이 추상화되어 개념지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그것이 더 추상화되어 조응지시에까지 확대되어 쓰인 것이라 보았다.

박철우(2011), 임동훈(2011)에서는 선·후행 발화에 언급된 언어 표현 자체를 가리키는 담화 직시적 용법과 선·후행 발화에서 언급된 표현의 지시 대상을 이어받는 조응적 용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8a)의 '이'는 어제 받아본 책이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조응적으로 쓰인 것이고, (8b)의 '이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담화 직시적으로 쓰인 것이다.

(8) a. 어제 책을 받아 보았더니, 이 속에서 새 사실을 찾게 되었다. (=7c)

b. **이 문장**은 17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시사의 담화 직시적 용법과 조응적 용법이 필연적으로 다른 과정이라면 그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러나 (8a)와 (8b)에 사용된 '이'는 사전 경험이나 지식, 선행 발화로 구성된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대상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같고,

1) 김일웅(1982)은 개념 지시의 경우에는 지시 대상에 거리를 두면 '그'와 '저'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청자가 그 지시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가 쓰이고 청자가 그 지시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신할 때에는 '저'로 지시한다고 말한다.

다만 조용적 용법에서는 청자가 선·후행 발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표상을 파악하게 되고 담화 직시적 용법에서는 선·후행 발화에서 언급된 표현을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민경모(2008)에서는 화자에게 가까운 것, 화자 자신의 발화에서 언급된 것, 화자만 아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의 쓰임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 (9) a. 어제 그 사람이 **이/그** 얘기를 하더라. 부모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b. 난 계속 청소를 하는데 **이/그** 인간은 그냥 쉬는 거야.

(9a)에서처럼 화자만이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의도적 후행 문맥 참조에 ‘이’ 외에 ‘그’도 쓰일 수 있고, (9b)에서처럼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모(2008)는 2.1절에서 살펴본 Strauss(1993)의 관심도의 정도에 따른 지시사의 구분을 따라 (9)와 같은 ‘이’, ‘그’의 쓰임은 화자의 지시 대상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화자의 집중도가 높은 지시대상이며 새로운 정보인 것은 ‘이’로, 집중도가 낮고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에는 ‘그’를 쓴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살펴본 (7a)와 같이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사의 쓰임은 공간적 원근에 따라 구분하였다.

서경희·홍종화(1999), Suh(2002)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원근 개념을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지식과 대상인식이라는 인지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시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그’, ‘저’의 지시 대상은 청자의 의식 속에 지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화자만이 그 지시 대상을 경험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쓰이고, ‘그’는 화자는 물론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화자가 믿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고, ‘저’는 화자와 청자의 지식 영역 밖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경희·홍종화(1999)는 지시사의 기능이 순수한 지시적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적 참여를 요구하는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담화적 기능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 즉, 시·공간적 원근 관계를 표시하는 것과 담화 상에서의 조용 관계를 표시하는 것, 지시대상이나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모두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경희·홍종화(1999)에서 제시한 지시적 기능, 담화적 기능과 박철우(2011), 임동훈(2011)에서 제시한 담화 직시적 용법, 조용적 용법을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이’가 갖는 개념적·절차적 의미와, 발화 이해 절차에 따라 지시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3. 관련성 이론에서의 의미의 이분법과 발화 이해 절차

3.1.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

Sperber & Wilson(1986/95)의 관련성 이론은 인간의 인지와 의사소통에 관해 연산적-표상적(computational-representational) 관점을 채택한다. 인간은 본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관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인지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관련성의 원리는 의사소통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본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발화는 청자의 주의를 이끌며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발생시킨다.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 경우는 긍정적인 인지 효과(positive cognitive effect)를 얻을 수 있을 때이다. 인지 효과란 (i) 어떤 발화가 기존 가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강화하거나, (ii) 기존의 가정을 부인하고 제거하거나, (iii) 기존 가정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새로운 내용인 맥락 함의(contextual implication)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지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 발화의 관련성은 더 크다. 그러나 발화가 청자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단지 인지 효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발화가 덜 두드러질(salient)수도 있고, 동일한 맥락 가정(contextual assumption)²⁾이 덜 접근 가능할 수도 있고, 동일한 인지 효과를 도출해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처리된 새 정보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해석을 산출하기 위해 인지 시스템이 지출해야 하는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이 크면 클수록 그 발화의 관련성은 더 작다. 따라서 관련성이란 인지 효과와 처리 노력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발화를 해석할 때 두 가지 과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발화를 개념적 표상(conceptual representation)으로 해독하는(decoding) 과정과 발화의 의도된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추론적(inferential) 과정으로 구분하는데, 관련성 이론에서는 추론 과정이 함축(implicature)을 도출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축(explicature)에도 적용된다고 말한다.³⁾ Carston(2002, 2011)에 따르면 언어적으로 부호화된 의미는 맥락에서 화자에 의해 '함축된 것(what is implicated)'만 그 의미가 미확정적(underdetermined)인 것이 아니라 '말해진 것(what is said)' 즉, 명시적인 것의 의미도 미확정적일 수 있다.⁴⁾ 따라서 화

2)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맥락이란 직접적입 물리적 맥락이나 인접발화 즉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장기기억에서 도출해 낸 일반적 맥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화를 사용하는데 청자가 형성한 가정(assumptions)의 집합이다.

3) 외축이란 발화의 불완전한 개념 표상에서 나온 의미를 부분적으로 맥락에 의존해 발전시킨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발화를 논리 형태(logical form)로 해독하는 과정만으로는 완전한 명제 형태를 생성할 수 없으며, 논리 형태에 대한 추론적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함축은 오로지 화용적 추론만으로 도출되는 의사소통된 가정이다. 다시 말해서 함축이란 화자가 의도한 맥락 가정 혹은 맥락 함의인 것이다.

4) Carston(2002)은 이를 미확정 논지(The underdeterminacy thesis)라고 하였다. 명시적인 것과 함축적

자가 의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명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서 청자는 화용적 추론을 함축적 내용과 명시적 내용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화용적 추론이 해독과 추론이라는 과정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화자의 발화가 어떻게 해석되길 바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 가정을 택하여 어떤 인지 효과를 도출해야 하는지 청자에게 곧바로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Blakemore(1987, 2002)는 화자가 의도한 맥락과 인지 효과로 청자를 인도해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련의 가정들을 제한함으로써 청자의 처리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Blakemore(1987, 2002)는 조작되어야(manipulated) 하는 표상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는 것과 어떻게 표상을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 하는 것 두 가지로 언어적 표현을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서 관련성 이론에서는 개념적 정보(conceptual information)⁵⁾를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와 어떤 개념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화용적 추론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로 의미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추론 과정이 명시적 내용과 함축적 내용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하는 언어 표현에는 명시적으로 의사소통되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축적으로 의사소통되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Scott(2009)에서 지시사는 어떤 대상을 화자가 가리키는 것인지를 표시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자를 인도하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다고 보았다.⁶⁾ 다시 말해서 지시사의 절차적 의미는 의도된 지시 대상과 지식 중심 간의 원근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this’가 갖는 절차적 의미는 ‘that’보다 지식 중심에 가까운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Scott(2009)이 제시한 것처럼 근칭 지시사 ‘this’가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Scott(2009)이 제시한 ‘this’의 절차적 의미는 공간적 근접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시 대상을 도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this’의 다른 대안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 것의 구분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Carston(2002) 참조.

- 5) 언어 기호로 입력된 발화의 정보 중 문장의 진리치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절차적 정보를 제외한 것이 개념적 정보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보를 토대로 논리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boy’, ‘cat’, ‘happily’ 등은 개념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어휘 항목들이다.
- 6) 절차적 정보는 함축적으로 의사소통된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담화 표지어 ‘so’, ‘but’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Blakemore, 1987). 절차적 정보는 명시적으로 의사소통된 것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Wilson & Sperber(1993), Wilson & Wharton(2006), Hedley(2007)에서는 대명사가 명시적으로 의사소통되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3.2. 지시사와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

관련성 이론에서 발화는 화자의 능력과 선호도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을 지닌 것이라는 확신을 청자에게 주고자 의도된 것이다. Wilson & Sperber(2004)는 이러한 최적의 관련성에 대한 추정(presumption)을 토대로 발화 해석에 사용되는 발화 이해 절차(comprehension procedure)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청자는 인지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리 노력을 요하는 길을 따르고, 접근 가능성에 따라 중의성 해소(disambiguation), 지시 해결(reference resolution), 함축 등의 해석 가설들을 테스트하고 관련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 때 테스트를 중단한다. 즉, 청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적의 관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발화를 해석하고자 하며 맥락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아 관련성의 원리와 일치되는 해석을 찾으면 발화 해석을 마치게 된다.

청자가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따라 발화를 해석할 때, 화자는 청자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장 첫 번째 해석이 그가 의도한 해석이 되도록 발화해야만 한다.⁷⁾ 지시 해결에 있어서는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이 화자가 기대한 방향으로 관련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접근 가능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this’와 같은 지시사를 사용하는 것은 ‘this’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를 통해 자신이 의도한 지시 대상에 대해 청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관련성 이론과 같은 인지적 접근 방식에서는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 지시 대상과 주어진 환경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접근 가능한 그 지시 대상의 심적 표상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접근 가능성이란 실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의 심적 표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0) **This** book was interesting to read.

화자와 청자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상황에서 (10)을 발화했다면,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따르는 청자는 (10)의 발화에서 언어적으로 부호화된 정보와 화합되는 가장 접근 가능한 지시 대상의 표상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book’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와 ‘this’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의미를 통해 서점에 있는 다른 여러 책보다 더 두드러지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의 표상은 더 접근 가능하며 지시사는 이 지시 대상의 표상으로 해결될 것이다. (10)의 ‘this book’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에 대해서는 4.1절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7) 만족할만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청자로 하여금 그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하게 되고, 또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해석은 화자의 능력과 선호도에 부합하는 가장 관련된 것은 아니게 된다.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는 명시적 단계와 함축적 단계에서 언어적으로 불충분하게 결정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적용되며, 청자의 목표는 관련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한 의미에 대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Wilson & Sperber(2004)에서는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청자가 수행하는 세 가지 부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해독과 중의성 해소, 지시 해결 및 다른 화용적 의미보충(enrichment) 과정을 통해 명시적 내용(외축)에 대한 적절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도된 맥락 가정(함축된 전제)에 대한 적절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의도된 맥락 함축(함축된 결론)에 대한 적절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함축된 전제와 결론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성을 고려함에 따라 결론을 바로 내릴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전제는 추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구축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와 발화 이해 과정의 세 가지 부과업을 통해 영어 지시사 'this'와 한국어 지시사 '이'의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겠다.

4. 'This'와 '이'에 관한 관련성 이론적 분석

4.1. 'This'와 '이'의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

영어 지시사 'this'가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Scott(2009)은 화자와 지시 대상 간의 공간적 원근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this'와 'that'의 구분 방식을 따라 'this'의 절차적 의미는 'this'의 지시 대상이 'that'보다 직시 중심에 가깝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Scott(2009)은 직시 중심이란 '여기'-'나'-'지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⁸⁾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절차적 의미를 통해 'this'의 쓰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절차적 의미에 포함되는 직시 중심과의 근접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에서 Scott(2011)이 제시하는 'this'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자.

- (11) A restudy of pareiasaurs reveals that **these** primitive reptiles are the nearest relatives of turtles. (Scott, 2011: 172)

화자는 'primitive reptiles'가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를 통해 선택 가능한 지시 대상 후보군을 'primitive reptiles'에 속한 것만으로 제한하고, 지시사 'these'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의미를 통해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특정 'primitive reptiles'으로만 한정시킨다. 관련

8) Scott(2009)은 직시 중심이 '여기'-'나'-'지금'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맥락에 따라 청자의 관점 등이 직시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따르는 청자는 (11)의 발화를 들으며 가능한 지시 대상들과 그에 따른 전체적인 발화 해석을 테스트할 것이다. Scott(2011)에 따르면 발화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지시 대상의 표상은 'pareiasaurs'이기에 청자는 'pareiasaurs'와 'these primitive reptiles'가 공지시적(co-referential)인지에 대한 가설을 테스트하고 그 가설에 따른 해석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발화 해석을 마치게 된다.

이 같은 Scott(2011)의 설명에서는 Scott(2009)이 제시한 'this'의 근접성이라는 구체적인 정보 없이도 발화 해석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Scott(2011)은 (11)과 같은 경우에는 맥락에서 이미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직시 중심(즉, (11)에서는 현재 발화)에서의 근접성이 표시되는지의 여부가 'these primitive reptiles'의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Scott(2011)은 근칭 지시사가 근접성을 표시하는 것은 지시 대상의 공간적 위치가 다른 근접하지 않은 대상과 대비되는 중요성을 가질 때에만 적절하다고 말한다. 즉, 근접성은 Lakoff(1974)가 말한 시·공간 직시에서만 표시되며 그 외 경우에는 근접성은 표시되지 않고 다른 지시 대상 후보들과 대비되는 효과만 준다는 것이다. 이는 'this'의 절차적 의미를 공간적 근접성이 아닌 다른 개념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Fillmore(1997)와 Strauss(2002)가 언급한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 공유 여부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this'의 절차적 의미로 설명하고자 한다. Strauss(2002)는 실제 담화 분석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눈 앞에 놓인 동일한 대상을 'this'와 'that'을 모두 사용하여 지시하는 경우 등을 들어 지시사를 원근 개념보다는 지시 대상에 관한 정보 공유 정도와 지시 대상이 화자에게 갖는 중요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화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대상이나 지시 대상이 중요한 것임을 표시할 때 'this'가 사용된다. 이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화자는 발화 이전에는 화자에게만 명시적(manifest)인 지시 대상에 대하여 화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this'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자에게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표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this'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화자의 경험이나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람, 사물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어떤 사실이나 가정이 명시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표상될 수 있고 이 표상을 사실 혹은 사실일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Sperber & Wilson, 1986/95). 본 연구는 'this'가 의미하는 절차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2) 화자에게만 명시적이었던 대상들의 집합에서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을 찾아라.

'this'의 절차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청자에게 암시해주고

화자와 청자의 주의를 동일한 대상에 집중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며, 그 외 사항들은 청자가 화용적으로 추론할 여지를 남겨둔다. 청자는 지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처리 노력을 요하면서 발화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salient) 대상을 찾아내면서 관련성을 얻게 된다.⁹⁾ 청자는 ‘this’의 절차적 의미로부터 화자가 의도한 ‘this’의 지시 대상은 발화 이전에는 화자에게만 표상된 것이라는 분명한 정보를 받게 된다. 본 연구는 ‘this’를 사용함으로써 중요성을 표시하거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효과는 발화 해석 과정에서 지시 대상을 확인하고 화자가 의도하고자 한 의미를 추론하면서 얻게 되는 것임을 보이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3) Have you heard **this**?

(13)의 ‘this’는 발화 이전에는 화자에게만 명시적인 대상들 중에서 ‘this’의 지시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한다. 즉, ‘this’가 발화된 이후에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명시적인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 이전에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mutual manifest)인 대상은 제외될 것이며, ‘this’가 발생한 이후 발화 맥락에서 그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화자가 (13)의 발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면 청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할 것이다.

(14) About what?

(14)는 ‘this’의 적절한 지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3)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다. (13)의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이 청자에게는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14)와 같은 응답은 (13)의 화자가 바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의 질문은 청자가 ‘this’가 가리키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기 보다는 화자가 ‘this’가 가리키는 것을 말하겠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라고 볼 수

9) 반면, ‘that’의 절차적 의미는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인 대상들의 집합에서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찾으라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that’은 Fillmore(1997)와 Strauss(2002)에서 설명하였듯이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알려져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명시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보를 안다는 개념보다는 약한 의미여서, ‘that’의 경우 이 지시사가 발화되는 순간 이전에 어떤 정보를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산책을 하던 중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주시하며 A가 “Look at that school!”라고 말할 때, A와 B가 발화 이전에 그 학교가 그곳에 있다는 것 혹은 B가 그 학교를 보았다는 것, A가 그 학교를 보았다고 B가 생각하는 것 등의 상호 공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발화는 가능하다. A는 그 학교라는 건물이 B의 인지환경에도 명시적이라는 확신 하에 발화를 한 것이다. 즉, ‘that’의 지시 대상이 상호 명시적이라는 것은 발화 이전에 청자에게도 명시적일 것이라고 화자가 판단한 어떤 대상을 발화를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있다. 따라서 (13)의 발화를 들은 청자는 (14)의 응답을 통해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this'의 절차적 의미에는 근접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5)의 예를 살펴보자.

(15) a. Hmm! _____'s a bad stain on the carpet!

b. Hello. What's _____?

(Niimura & Hayashi, 1994: 334)

Niimura & Hayashi(1994)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바닥에 있는 얼룩을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면서 (15a)를 발화할 때와 서서 바닥에 있는 종이를 보며 (15b)를 발화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피실험자 중 62%는 (15a)에서 'that'을 선택하였고, 76%는 (15b)에서 'this'를 선택하였다. Niimura & Hayashi(1994)는 (15a)에서 'that'이 더 선호되는 이유는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와의 공간적 거리감 외에 심적 거리감 즉, 지시 대상에 대해서 별다른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15b)는 그 반대의 경우여서라고 말한다. 즉, 공간적 거리감이라는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지시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영어의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지시사가 동일한 대상에게 화자와 청자의 주의를 끄는 절차적 의미 외에 원근 거리에 대한 개념적 의미 또한 갖고 있으며, 각각의 개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perber & Wilson(1998)에 따르면 개념적 의미를 갖는 언어 표현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전한 개념(full-fledged concept)을 부호화하는 언어 표현과 완전한 개념을 부호화하기 위하여 맥락에 의존하여, 즉 맥락에서 그 의미 속성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가개념(pro-concept)을 부호화하는 언어 표현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near'는 개념적 내용을 갖고는 있지만, 'The theater is near here'라는 발화의 진리치를 갖기 위해서는 맥락적으로 구체화되는 거리추정등급(distance scale)에 따라 'near'의 의미 속성이 결정될 것이다. Kemmerer(1999)가 주장하였듯이 지시사가 표현하는 원근 개념이라는 의미 자질이 맥락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것이라면,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지시사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되는 거리등급에 따라 지식 중심에서 가깝거나 먼 가개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시사는 가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를 모두 갖는 언어 표현인 것이다.¹⁰⁾

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경모(2008), 서경희·홍종화(1999), Suh(2002)에서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쓰이는 한국어 지시사 '이', '그', '저'에는 공간적 원근 개념을 기본 의미로 설정하였다. 반면, 공간적 원근 개념과 연관되지 않은 지시사의 쓰임에서는

10) 관련성 이론에서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정보를 모두 부호화하는 언어 표현으로 'he', 'she'같은 대명사와 일본어 연결사 'kara'와 'node'가 제시되었다(Nicolle, 1997; Takeuchi, 1997).

지시사 ‘이’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여서 높은 집중도를 요구할 때 사용되고 ‘그’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정보여서 낮은 집중도를 요구할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민경모, 2008). 서경희·홍종화(1999), Suh(2002)에서도 화자가 자신의 지식 영역에 지시 대상이 속한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가 사용되고 ‘그’는 화자와 청자의 의식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고, ‘저’는 화자와 청자의 경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킬 때에 쓰인다고 보았다. 지시사 ‘이’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가리킨다는 점을 본 연구는 (12)의 절차적 의미를 ‘이’가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발화 내에 언급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지시 대상을 가리킬 때에도 동일한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다. 또한 지시사 ‘이’는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끄는 절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시 중심에서의 근접성이라는 가개념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의미적 속성은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예에서는 ‘이’와 ‘그’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16) (청자의 겂옷을 쳐다보며) 너 이 옷 어디서 샀어?

‘이 옷’은 화자보다 그 옷의 소유자인 청자에게 더 가까운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리로 구분한다면 ‘그’가 쓰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발화는 자연스러운데,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지시 대상이 화자라는 지시 중심에서 가깝다고 보고 이러한 원근 거리에 대한 해석은 지시사 ‘이’가 부호화하는 가개념적 정보를 통해 청자가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이’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를 통해 화자가 특정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대상은 ‘옷’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정보를 통해 ‘옷’에 속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청자의 겂옷을 쳐다보는 화자의 눈짓을 통해 발화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시 대상은 청자의 겂옷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이’를 사용한 것이다. 이때 화자가 ‘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쓴 것은 ‘이 옷’의 심적 표상이 발화 이전에는 청자에게 명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이다. 반면 지시 대상이 청자의 옷이라는 점에서 그 심적 표상이 청자에게도 활성화되어서 접근 가능성이 높고 화자에게 상대적으로 가깝지 않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화자는 ‘이’ 대신 ‘그’를 사용할 것이다.¹¹⁾ 그러나 (16)에서 ‘저’의 사용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저’는 화자와 청자라는 지시 중심에서 먼 것이라는 가개념적 정보를 부호화하기 때문이다. ‘저’는 발화 이전에는 청자와 화자에게 모두 접근 가능성이 낮은 대상 중 발화를 통해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화자에게는 그 대상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지시 대상에

11) 즉, ‘그’는 지시 중심과의 거리감을 맥락 속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가개념적 정보를 부호화하고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인 대상 중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다.

대한 접근성이 화자에게도 발화 이전에는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저’의 절차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화자가 구입처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만든 청자의 옷에 대한 접근성이 화자에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16)에서의 ‘저’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 4.2절에서는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this’와 ‘이’의 가개념적, 절차적 의미와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통해 시·공간 지시, 담화 지시와 조응, 감정 지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2. ‘This’와 ‘이’의 용법

4.2.1. 시·공간 지시

전통적으로 ‘this’가 공간적 근접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경우를 살펴보자.

(17) Can I have **this** croissant, please?

청자는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따라 최소한의 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석을 찾으려 할 것이다. (17)의 발화에서 청자는 ‘this’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에 따라 ‘this’가 발생한 이후의 발화 맥락에서 지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croissant’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정보를 통해 그 대상은 크로아상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제한되며 화자와의 근접성은 맥락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화자가 빵을 고르는 상황에서 (17)을 발화했고 그 빵집에 크로아상이 한 개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맥락에서 청자가 갖는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해석을 도출하게 해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this croissant’의 지시 대상은 그 크로아상이 된다. 그런데 그 빵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크로아상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this croissant’이 부호화하는 언어적 정보만으로는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가 의도한 대상을 가리키는 손짓이나 눈짓 혹은 고갯짓이 동반되어야 한다. 손짓이나 눈짓, 고갯짓은 화자의 의도를 알려주는 단서로서의 기능을 해서 화자의 주의를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Wharton(2003)에 따르면 몸짓은 태도나 감정과 관련된 개념을 활성화시켜 그 사람이 의도한 개념적 표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다. 따라서 ‘this’가 부호화하는 개념적·절차적 정보와 ‘croissant’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정보로 여러 가능한 대상 중 지칭 가능한 대상 후보들을 화자에게 가깝게 있다고 판단되는 크로아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제한하게 되고, 여러 가능한 대상들 중 발화와 함께 동반되는 화자의 몸짓이 가리키는 절차적 정보에 따라 화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의 표상이 청자의 의식 속에 활성화될 것이다.

근칭 지시사 ‘이’가 쓰인 한국어 예문을 살펴보자.

(18) A: (B의 걸옷을 쳐다보며) 너 이 옷 어디서 샀어? (=14)

B: (걸옷을 만지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샀는데.

A의 발화를 들은 B는 ‘이’의 절차적 의미와 A가 자신의 옷을 쳐다보는 눈짓이 표현하는 절차적 의미를 통해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시 대상은 자신의 걸옷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한편 B는 ‘이 옷’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를 통해 맥락에서 화자라는 지시 중심에서 가까운 대상을 추론하게 되는데, B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걸옷은 A의 것이 아니기에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B는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에 따라 A의 발화가 최적으로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발화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시 대상은 자신의 걸옷이라고 결론내릴 것이다. 이 경우 ‘이’가 부호화하는 개념적 정보는 화자는 청자의 옷이 자신에게 가까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가정을 택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요하게 된다. 관련성 이론에서 추가적인 처리 노력은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보상된다.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함축을 도출하는 것이 있는데, 함축은 강함축(strong implicature)과 약함축(weak implicature)으로 구분된다(Sperber & Wilson, 1986/95). 강함축은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구되어야 하며 다른 대안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함축의 강도가 강한 것이다. 반면, 약함축은 발화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는 동등한 가능성을 갖는 다양한 함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함축의 정도가 약한 것이다. 발화는 청자로 하여금 다양한 약함축을 도출하게끔 하지만, 이 중 어떤 것을 도출할 것인지는 청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청자가 복구하는 약함축이 화자가 반드시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강함축 또는 약함축을 도출함으로써 발화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처리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가 A의 발화가 제공하는 정보와 ‘A는 내 옷을 A에게 가까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맥락 가정을 통해 ‘A는 내 옷을 마음에 들어 한다’같은 약함축을 도출한다면 ‘이’의 개념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들인 추가적인 처리노력이 정당화 된다.

(18)에서 B의 발화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기 위하여 화자라는 지시 중심에서 가깝다는 개념적 의미를 갖는 ‘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B의 발화에서 ‘이거’가 가리키는 대상은 A가 말한 ‘이 옷’과 동일하다. 즉, A의 발화를 통해 이 지시 대상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상호 명시적인 것이 된다. 이 경우 ‘이’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는 발화 이전에는 화자에게만 명시적인 대상 중에서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보를 따르게 되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B의 발화에서 ‘이’ 대신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대상을 찾도록 하

는 절차적 의미를 표현하는 ‘그’를 사용하더라도 이 발화는 어색하게 들린다. 이는 화자와 청자에게 지시 대상이 이미 상황 맥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원근 거리를 확인하게 해주는 지시사의 가개념적 정보와 화자의 몸짓이 제공하는 절차적 정보만으로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의 절차적 정보는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을 찾으라는 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때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따르는 청자인 A는 B의 발화가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 발화라고 가정하고 ‘이’의 절차적 정보를 통해 (19)와 같은 다른 접근 가능한 맥락 가정을 찾을 것이다. B의 발화는 이 맥락 가정을 부인하고 제거시킴으로써 인지 효과를 얻게 되고 청자는 ‘이’의 불필요한 처리 노력을 정당화하게 된다.

(19) B는 내가 물어본 옷이 B가 입고 있는 걸옷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시간 직시로 사용되는 근칭 지시사를 살펴보자.

- (20) a. I will pick her up **this** afternoon.
 b. I picked her up **this** afternoon.

(20a)에서 ‘this afternoon’이 가리키는 시간은 현재 발화시보다 나중의 미래를 나타낸다. ‘this’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청자는 발화 이전에는 청자에게 활성화되지 않은 ‘this afternoon’의 심적 표상에 접근하게 되고, ‘this’의 개념적 의미를 통해 발화시에서 가까운 오후를 찾게 될 것이다. 이때 시제를 통해 이 발화의 서술어가 표상하는 사태의 시점이 직시 중심보다 앞선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발화시에 가까운 지시 대상은 내일 오후나 모레 오후 등이 아니라 오늘 오후가 될 것이다. 즉, ‘this afternoon’은 발화시를 포함하는 오늘 하루에서 오후라는 기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발화의 시제가 (20b)처럼 과거일 경우에도 ‘this afternoon’의 지시 대상은 오늘 오후이지만, 이 표현이 가리키는 시간은 현재 발화시보다 과거가 되고 (20a)에서는 현재 발화시보다 미래가 된다.

한국어에서도 ‘이 밤’이 가리키는 대상은 오늘 밤이 되지만, (21a)에서 이 표현이 가리키는 시간은 현재 발화시를 포함한 시간이 된다.

- (21) a. 그는 **이** 밤에 청소를 한다.
 b. 그는 **이** 밤에 청소를 했다.
 c. *그는 **이** 밤에 청소를 했었다.

(21b)의 ‘이 밤’ 역시 발화시를 포함하는 시간 단위를 지칭하며,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위는

발화시 이전에 시작되었고 현재 발화시에는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20b)와는 다르다. (21c)에서처럼 과거형 시제 '-었'이 쓰이면 (21b)에서보다 더 완료성이 확인해지는데 (홍중선, 2008), 이 경우에는 '이 밤'이 함께 쓰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이' 대신 '그'를 쓰게 되면 '그'가 갖는 개념적 의미를 통해 현재 발화시에서 먼, 즉 오늘 밤이 아닌 과거의 어떤 날의 밤을 가리키게 되어서 적절한 발화가 될 수 있다. '그'가 쓰인 발화가 청자에게 최적의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가 표현하는 절차적 의미를 통해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활성화된 대상들 중에서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1c)에서 '이 밤' 대신 '그 밤'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선행 발화에서 '그 밤'이 언제인지 언급된 경우이거나 화자와 청자의 공유 지식을 통해 '그 밤'의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화자가 기대할 때이다.

4.2.2. 담화 직시와 조응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시는 맥락상의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조응은 선·후행 담화에서 언급된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과 지시 대상이 공지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담화 직시적 용법은 지시사가 언어 표현 자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Levinson, 1983, 2004). 담화 직시적 용법으로 쓰인 'this' 역시 'this'의 개념적·절차적 의미와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에 따라 설명가능하다.

(22) What happened was **this**: Alex was doing his way and not the way the restaurant has been doing.

화자는 (22)에서 'this'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청자에게 가리키고 있다. 화자는 'this'가 갖는 절차적 의미를 통해 청자를 우선적으로 화자가 의도한 맥락으로 인도해 화자가 의도한 해석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22)를 발화한 것이다. 이 대상은 'this'가 갖는 개념적 의미에 따라 'this'가 포함된 발화 텍스트에서 인접한 것들로 제한된다. 청자는 'this'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를 통해 'this'가 발화된 이후 청자에게도 명시적이 된 대상을 찾을 것이다. (22)의 발화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지시 대상은 'this' 이후에 발생한 발화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되고, 청자는 이 지시 대상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해석을 도출한다고 결론내리고 해석을 마칠 것이다.

Strauss(2002)는 'this'가 청자의 주의를 지시 대상에 끌어들이고 높은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화자는 (22)의 발화 대신 (23)의 발화를 통해서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23)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지 효과를 위해서 (22)를 발화한 것이다.

(23) What happened was Alex was doing his way and not the way the restaurant has been doing.

(22)의 청자는 ‘What happened was’를 듣고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23)에서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this’가 사용됨으로써 그 대상이 바로 나오지 않고 그 이후 발화에서 지시 대상을 확인하게 되므로 (23)의 경우보다 처리 노력을 더 요하게 된다. 하지만 (22)의 발화가 화자의 능력과 선호도로 미루어 보아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가정하는 청자는 발화 맥락을 더 확장하여 이 처리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가 Alex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은 청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믿어서이다’라는 배경가정을 통해 (22)를 해석한다면 ‘화자에게는 Alex에게 발생한 일이 중요하다’같은 약함축을 도출해 내게 될 것이다.¹²⁾ 따라서 (22)의 발화는 (23)을 해석할 때보다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강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강조 효과를 얻게 된다.

담화 직시적 용법뿐만 아니라 조용적 용법에서도 근칭 지시사는 청자의 주의를 특정 대상에 이끄는 역할을 한다. 다만 담화 직시적 용법에서는 그 지시 대상이 발화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나 발화의 언어적 표상이 되고, 조용적 용법에서는 발화 텍스트에서 언급된 대상의 심적 표상이 된다. 조용적 용법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Scott(2011)의 예시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자.

(24) A restudy of pareiasaurs reveals that **these** primitive reptiles are the nearest relatives of turtles. (= (11))

(24)의 발화에서 ‘these primitive reptiles’가 가리키는 대상은 ‘these’의 절차적 의미에 따라서 ‘these’가 발생한 발화 이후에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며, ‘these’의 개념적 의미에 따라 그 대상은 맥락을 통해 현재 발화 텍스트 내에서 가까운 것들로 제한된다. 또한 그 대상은 ‘primitive reptiles’에 속한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런데 Scott(2011)이 말한 것처럼 ‘these’가 발생하기 전의 발화에 나온 ‘pareiasaurs’가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these primitive reptiles’의 표상이라면 ‘pareiasaurs’의 표상은 이미 ‘these’가 발화되기 전에 청자에게도 활성화된 것이고, 이는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인 것이다. 어떻게 (24)의 ‘these’가 청자에게도 이미 명시적인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것일까?

12) 발화에서 어떤 약함축을 도출하게 될 것인지는 청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2)에서 청자가 ‘화자는 Alex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청자가 관심이 많다고 믿는다’라는 맥락 가정을 선택한다면 ‘화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끌고자 한다’라는 약함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발화 맥락 속에서 ‘these primitive reptiles’의 가능한 지시 대상은 ‘these’가 발화된 순간에 이미 상호 명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these’의 상호 명시적 인지 환경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표상한 것이며 이 발화는 성공적으로 의사소통될 것이다. 선행 발화를 통해 ‘pareiasaurs’가 이미 청자에게도 명시적이었지만 ‘primitive reptiles’가 ‘pareiasaurs’라는 것이 명시적 상태가 된 것은 화자의 발화 때문이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24)의 발화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관련성을 갖는 해석을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처리 노력을 요하는 길을 따르도록 관련성에 대한 추정을 불러일으킨다. 청자는 ‘primitive reptiles’의 개념적 의미를 통해 화자가 의도하는 지시 대상이 ‘primitive reptiles’에 속한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these’의 절차적 의미 때문에 앞서 언급된 ‘pareiasaurs’를 지시 대상 후보로 고려하지 않고, 다른 가능한 대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화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맥락 가정이 (25)이고 ‘these’의 개념적 정보에 따라서 ‘pareiasaurs’가 텍스트 내에서 가까운 대상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맥락 가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해석을 얻을 수 있다면,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에 따라 이 해석이 바로 청자가 선택하는 해석이 되고 청자는 다른 가능한 해석은 고려하지 않고 발화 해석을 마치게 된다.

(25) Pareiasaurs are primitive reptiles.

이러한 해석 과정은 청자의 인지 환경에서 ‘these’가 발화되는 순간에 가장 접근 가능한 맥락 가정이 (25)라고 할 때 그 지시 대상은 이미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이어서 ‘these’의 절차적 의미는 화자의 주의를 끄는 대상을 찾으라는 정보 외에는 청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발화가 최적의 관련성을 가질 때는 청자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정도의 충분한 인지 효과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처리 노력을 들이지 않을 때이며, 불필요한 추가적인 처리 노력은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만일 화자가 단순히 pareiasaurs가 의도된 지시 대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 목표로 했다면 (26)에서처럼 ‘these primitive reptiles’ 대신 ‘they’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6) A restudy of pareiasaurs reveals that **they** are the nearest relatives of turtles.

‘They’는 ‘these primitive reptiles’보다 더 단순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처리 노력도 덜 필요할 것이다.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26)을 발화하는 것이 옳겠지만, 최적의 관련성을 목표로 삼는 화자가 (24)를 발화한 것은 (26)의 발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지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24)의 발화는 (25)의 맥락 가정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지 효과를 얻게 된다. 혹은 청자가 알고 있던 발화와 관련된 정보나 담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these’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발화 이전에는 청자에게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접근 가능성이 낮았던 대상들과 발화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발화의 주제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primitive reptiles’에 집중되어 있다는 약함축을 도출함으로써 인지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담화 직시적 용법과 조용적 용법으로 쓰인 ‘이’를 개념적·절차적 의미와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7) 이 문장은 17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8))

(28) 어제 책을 받아 보았더니, 이 속에서 새 사실을 찾게 되었다. (=7c))

(27)의 발화는 담화 직시적 용법으로 쓰인 예이다. 청자는 ‘이’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발화 이후에 청자에게도 명시적이 된 대상을 찾게 되고, 이 대상은 ‘문장’이라는 언어 항목이 표현하는 개념적 의미를 통해 문장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발화 맥락에서 구체화되는 ‘이’의 개념적 의미를 통해 ‘이’의 지시 대상이 ‘이’가 쓰인 발화 텍스트 내에서 가까이 위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때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이 문장’의 지시 대상은 이 발화 자체의 언어적 표상이 된다. (28)의 ‘이’는 조용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27)에서처럼 ‘이’가 부호화하는 개념적 정보를 통해 그 지시 대상은 발화 텍스트 내에서 ‘이’와 가까운 것으로 제한된다. ‘이’의 절차적 의미는 청자로 하여금 발화의 순간 이후에 청자에게도 명시적이 된 대상들 중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것을 찾도록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25)의 예와 같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되어서 청자에게 이미 접근 가능성이 높은 대상, 즉 ‘책’의 심적 표상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절차적 정보는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찾으라는 것 외에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청자는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시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의 절차적 의미로 인하여 발화 이후에 청자에게 활성화된 대상들과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인 어제 받은 책을 비교하게 만든 불필요한 처리 노력은 ‘화자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 받은 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같은 약함축을 도출함으로써 정당화될 것이다.

(28)에서 ‘이’ 대신 ‘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와는 다른 효과를 주게 된다. 청자는 ‘그’의 절차적 정보를 통해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하며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명시적인 대상인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어제 받은 책’이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그’의 개념적 정보를 통해 이 지시 대상이 ‘그’와 멀리 위치한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청자가 갖는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청자는 발화에 대한 해석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28)에서 ‘그’가 사용된다면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청자가 확인할 수

있을 뿐, '이'가 사용될 때처럼 약함축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인지 효과는 얻지 못한다.

민경모(2008)에서는 지시 대상을 후행 발화에서 찾는 경우, 즉 화자와 청자의 공통 인식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화자만이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에 '이'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29) 어제 그 사람이 **이**/그 얘기를 하더라. 부모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9a)

(29)에서 '그 얘기'의 지시 대상은 후행 발화 텍스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모님 한번 뵙고 싶다고'가 표현하는 명제가 된다. 이때 지시사 '그'는 발화 이전에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인 대상 중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기 때문에 청자로 하여금 선행 발화 텍스트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대상을 찾거나 청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 맥락 속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명시적인 대상을 찾고자 할 것이다. 이때 청자의 배경 지식이나 선행 발화 맥락을 통해 적절한 지시 대상을 찾을 수 없더라도 '그'의 개념적 의미를 통해 발화 텍스트 내에서 '그'로부터 멀리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들 중 후행 발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시 대상을 확인하게 되고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면 발화 해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의 절차적 의미는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찾으라는 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것이어서 청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요하게 된다. 이때 화자는 청자가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들어본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는 뒤에 나올 이야기를 나 또한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같은 약함축을 도출함으로써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도록 한다. 따라서 '그'는 청자로 하여금 추론의 시작점을 제공하고 맥락을 통해 최대한의 관련성을 갖는 해석을 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4.2.3. 감정 지시

근칭 지시사 'this'는 선행 발화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화자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상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30) One day last year on a gloomy day, I saw **this** guy, and ... (=4)

Strauss(2002)와 Lakoff(1974)는 (30)과 같은 'this'의 쓰임은 화자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이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this guy'를 사용했고, 청자가 이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발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만을 표시하려 했다면 (31)에서처럼 'this' 대신 'a'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1) One day last year on a gloomy day, I saw a guy, and ...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중에 (31)을 발화한 것이라면, 'a guy'가 누구인지 화자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청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대상일 것이다. 이때 청자는 (31)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화자만 알고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해야 할 뿐 'a guy'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또한 화자가 'a guy'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반면, (30)의 청자는 'this'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this'가 발화된 이후의 맥락 속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명시적인 대상을 찾을 것이다. 이때 'this'가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를 통해 맥락에서 구체화되는 거리적인 근접성에 대한 정보는 발화 상황에서 이 남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처리 노력은 '화자의 이야기에서 이 남자는 처음 등장하였고 화자는 이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와 같은 배경 가정을 통해 '이 남자는 화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이다'같은 약함축을 도출하며 정당화되고, 청자는 화자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지 효과는 'this'를 'a'로 대체할 경우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감정 직시의 예로 '이'가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민경모(2008)에서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 화자와 청자가 모두 그 지시 대상을 아는 경우에 '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32) A: 내가 언니 흰 거, 내가 치마 안 입잖아 언니. 치마 사 가지구 이빠가 사 가지
구 안 입는 게 몇 개 있거든.

B: 예.

A: 안 입는데 이 인간이 또 치마 정장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바지가 입고 싶어.
(민경모, 2008: 66)

(32)의 A의 두 번째 발화에서 '이 인간'이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대상이고 담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시사 '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이'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를 통해 발화 이전에는 청자에게 지시 대상의 심적 표시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발화를 처리하면서 청자가 주목하지 않았던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끌기 때문이다. (32)의 '이 인간'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발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가 부호화하는 거리감에 대한 가개념적 정보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처리 노력은 청자로 하여금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그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게 되어 정당화될 수 있다. 청자는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32)의 발화 맥락을 통해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Lyons(1977)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개입에 대한 호소가 공감 직시(empathetic deixis)

의 쓰임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하며 이러한 점에서는 직시가 양태(modality)와 통합된다고 보았다. 즉, 일정한 형태상의 특질이나 사건의 진행과 경과 과정이 형성되는 각각의 특정한 양태를 지시할 때 지시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33)의 발화에서는 ‘this huge table’의 지시 대상이 발화 장소에 존재하지 않지만, 화자는 양팔을 벌리는 몸짓을 통해 책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3) (두 팔을 벌리며)

He bought **this** huge table, and the next day he got rid of his couches, tv, speakers, books, etc.

이 경우 청자는 ‘this’의 절차적·개념적 의미와 ‘huge table’의 개념적 의미만으로는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찾기 어려우나, 화자의 몸짓이 전달하는 절차적 의미를 통해 청자가 추측하는 대략적인 크기의 책상이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시 대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청자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33)의 경우 처럼 맥락 속에서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몸짓이나 눈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 등을 통해 청자의 해석 과정을 돕는다. 이때 ‘this’는 화자에게만 그 지시 대상의 표상이 명시적이기 때문이어서 즉, 청자는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this’의 개념적 의미는 발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할 수 있지만, 지시 대상을 마치 담화 현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쓰인 것이라고 본다면 ‘this’가 표현하는 개념적 의미는 지시 대상에 대해 화자가 갖는 심리적 근접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고, 이는 Strauss(2002)와 Lakoff(1974)가 말했듯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한국어에서도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지시 대상에 대하여 화자의 몸짓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지시 대상을 유추하도록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34) (두 팔을 벌리며)

책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니까.

(34)의 청자는 화자의 몸동작과 ‘이’의 의미를 통해 화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들 중에서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만큼’을 제외한 발화의 의미에 따르면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이 현재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는 이러한 맥락과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만큼’이 가리키는 책이 쌓여있는 대략적인 정도를 화자의 몸짓을 통해 추론할 것이다. 이는 ‘이’가 부호화하는 개념적·절차적 정보뿐만 아니라 ‘this’가 발생한 발화 상황 맥락과 화자의 몸짓이 제공하는 절차적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이’의 쓰임은 화자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주고 청자의 관심을 더 고조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5. 결론

본 연구는 관련성 이론에 의거하여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의미 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근칭 지시사는 직시 중심과의 근접성이라는 가개념적 의미를 갖으며 이는 맥락에 의해 그 의미 속성이 구체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근칭 지시사는 발화 이전에는 화자에게만 그 지시 대상의 표상이 명시적이었으나 발화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된 대상들 중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 화자는 지시사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청자가 관련된 해석을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this’와 ‘이’와 같은 지시사를 화자가 사용하는 것은 이 지시사가 갖는 절차적·개념적 의미를 통해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에 대한 청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근칭 지시사 ‘this’와 ‘이’가 부호화하는 개념적, 절차적 정보와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를 통하여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공간 직시적 용법, 선·후행 담화에서 언급된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과 지시 대상과의 공지시 관계를 가리키는 조용적 용법, 언어 표현 자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인 담화 직시적 용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시 대상의 중요성을 표시하거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효과는 발화 해석 과정에서 지시 대상을 확인하고 화자가 의도하고자 한 의미를 추론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시사의 의미와 맥락만으로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자의 몸짓이나 눈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활성화하는 절차적 정보를 통해 지시 대상을 파악하게 된다. 청자는 관련성 이론적 발화 이해 절차에 따라 지시사의 의미를 통해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을 파악하여 해석 가설을 테스트하고 관련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면 해석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요하는 불필요한 처리 노력은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당화되며, 이러한 효과는 같은 맥락에서 불필요한 처리 노력이 들지 않는 다른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칭 지시사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와 한국어의 다양한 용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의 근칭 지시사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동일한 내용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영어의 ‘this’나 ‘these’가 한국어의 ‘이’ 계열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번역되는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리라 보며, 이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웅. (1982).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3, 53-87.
- 민경모. (2008).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철우. (2011).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36, 1-37.
- 서경희, 홍종화. (1999). "이게 바로 그거야": 원근지시에서 태도지시로. *담화와 인지*, 6(2), 1-22.
- 임동훈. (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 36, 39-63.
- 장경희. (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2), 167-184.
- 장경희. (2004). 국어 지시 표현의 유형과 성능. *한국어 의미학*, 15, 51-70.
- 최현배. (1959).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홍종선. (2008). 국어의 시제 형태소 체계와 그 기능 변이. *한글*, 282, 97-123.
- Ariel, M. (1990). *Assessing noun phrase antecedents*. London: Routledge.
- Ariel, M. (2004). Accessibility marking: Discourse functions, discourse profiles, and processing cues. *Discourse Processes*, 37(2), 91-116.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Blakemore, D. (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ston, R. (2002). *Thoughts and utterances*. Oxford: Blackwell.
- Carston, R. (2011). Lexical pragmatics and lexical semantics: The form of grammar and the demands of interpretation. Paper delivered at the 12th *International Pragmatics Conference*, Manchester, July.
- Cheshire, J. (1996). That jackspra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n English *that*. *Journal of Pragmatics*, 25, 369-393.
- Dissel, H. (2006). Demonstratives, joint attention, and the evolution of grammar. *Cognitive Linguistics*, 17(4), 443-5462.
- Fillmore, C. (1997). *Lectures on deixi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Gundel, J. K., Hedberg, N., & Zacharski, R.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274-307.
- Gundel, J. K., Hedberg, N., & Zacharski, R. (2004). Demonstrative pronouns in natural discourse. Paper presented at DAARC-2004, Sao Miguel, Portugal, 23-24 September.
-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nks, W. F. (2009). Fieldwork on deixis. *Journal of Pragmatics*. 41, 10-24.

- Hedley, P. (2007). *Anaphora, relevance and the conceptual/procedural distin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 Kemmerer, D. (1999). "Near" and "far" in language and perception. *Cognition*, 73, 35-63.
- Lakoff, R. (1974). Remarks on this and that. In M. W. La Culy, R. A. Fox and A. Bruck (Eds.), *Proceedings of the Te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s Society* (pp. 321-344). Stanford: CSLI.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2004). Deixis. In L. R. Horn and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pp.97-121). Oxford: Blackwell.
-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olle, S. (1997). Conceptual and procedural meaning: Criteria form the identification of linguistically encoded procedural meaning. In *Proceedings of the University of Herefordshire Relevance Theory Workshop*. 47-56.
- Niimura, T., & Hayashi, B. (1994). English and Japanese demonstratives: A contrastive analysi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5(2), 327-351.
- Reboul, A. (1997). What (if anything) is accessibility? A relevance-oriented criticism of Ariel's accessibility theory of referring expressions. In J. H. Connolly, R. M. Vismans, & C. S. Butler (Eds.), *Discourse and pragmatics in functional grammar* (pp. 91-108). Berlin: De Gruyter.
- Scott, K. (2009). A procedural analysis of 'this' and 'that'.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1, 151-181.
- Scott, K. (2011). Beyond reference: Concepts, procedures and referring expressions. In V. Escandell-Vidal, M. Leonetti, & A. Ahern (Eds.), *Procedural meaning: Problems and perspectives* (pp. 183-204). Bingley: Emerald Group.
- Sperber, D. & Wilson, D. (1986/95). *Relevance*. Oxford: Blackwell.
- Sperber, D. & Wilson, D. (1998). The mapping between the mental and the public lexicon. In P. Carruthers and J. Boucher (Eds.), *Thoughts and language*, (pp. 184-2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h, K. (2002). An interactional account of the Korean demonstrative ku in convers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29, 137-158.
- Strauss, S. (1993). Why 'this' and 'that' are not complete without 'it'. *Papers*

- from the 2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SLI*, 29, 403-417.
- Strauss, S. (2002). *This, that, and it* in spoken American English: A demonstrative system of gradient focus. *Language Sciences*, 24, 131-152.
- Takeuchi, M. (1997). Conceptual and procedural meaning: cause-consequence conjunctive particles in Japanese.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9, 127-148.
- Wharton, T. (2003). Interjections, language, and the 'showing/saying' continuum. *Pragmatics and Cognition*, 11, 39-91.
- Wilson, D., & Sperber, D. (1993). Linguistic form and relevance. *Lingua*, 90, 1-25.
- Wilson, D., & Sperber, D. (2004). Relevance theory. In L. R. Horn, and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pp. 633-656). Oxford: Blackwell.
- Wilson, D., & Wharton, T. (2006). Relevance and prosody. *Journal of Pragmatics*, 38, 1559-1579.

최인지

경상대학교 영어교육과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전화: (055)-772-2190

이메일: ijchoi@gnu.ac.kr

Received on December 31,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February 27, 2013

Accepted on March 8, 2013